

12. 구주가 오실 인간 계통을 예언함(2)

2012. 3. 18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주께서 어떤 길로 오실 것인지 예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창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노아가 아들 함이 잘못된 일을 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 중에서 구주께서 오실 인간 계통을 말 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계속 말씀해야지요?

답: 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9장25~27을 본문으로 봉독을 했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함의 맏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불러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면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되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의 집에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창대하게 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면 셈은 야벳보다 더 창대해야 되겠지요. 노아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서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을 암시하셨지요. 또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야벳을 통하여 창대하게 되지만 구주는 셈의 후손으로 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과 셋 계통의 족보는 구주가 오실 인간 계통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런 뜻이 담겼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이겠네요?

답: 예, 아브라함은 셈의 10대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 셈은 아직도 생존하고 있었지요. 유대인의 전설에는 아브라함이 10대조 셈에게서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등 다 잘 들었고, 아바라함은 어릴 때부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

를 섬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일찍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을 보신 것이지요. 느헤미야 9:7,8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것이 확실하지요.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아마도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2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는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자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바로 창3:15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3:16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3.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또 남자인 셈과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구주가 오신다고 합니까? 모순이 아닌지요?

답: 예,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여자의 후손, 즉 남자와 전혀 상관없는 순결한 처녀인 여자를 통하여 오시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이어오는 구주의 사람 계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구주를 분간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의 중심은 바로 구주가 오시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인류 구원에 대한 것인데 창세기 3:15부터 이 예언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입니다. 만일 이것을 바르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주의 신원조회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당당히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했을 것인데 유대인이 그 내용을 변경해서 이삭이라고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여행가서 이슬람 바위사원에 갔을 때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단에 올려놓은 곳이라고 하면서 이슬람교인인 관광 안내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을 다 아시고 이런 혼란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구주를 찾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조처를 다 취하신 것이지요.

4.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세상에 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구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보시고 모든 예방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답: 그렇지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사야 46:10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중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계통으로 세상에 왔으며 특히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누구든지 자기가 세상의 구주라고 하면 모두 가짜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구주는 아닙니다. 세상에 도덕적 선생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내세를 약속할 수 있지요. 일반 종교의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권선징악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실상을 모르는 것이지요. 환상이나 상상이나 그런 것에 기초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태초에 여자를 유혹한 뱀의 사상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삭였지요. 그런데 하와가 죽은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벨의 죽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뱀인 사단은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한 것은 욕신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속삭이며 영혼불멸을 주장하게 했고, 사단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악령과 또는 의의 천사처럼 활동하여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활동하는 것처럼 사람을 철저히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선악과나무에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 후로 언제나 사람은 모든 판단의 표준을 도덕적 선과 악에 맞춥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면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악하면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지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은 불멸이라는 뱀의 주장에 기초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덕이나 종교는 그 뿌리가 뱀의 주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데,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자기의 선행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권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정한 생명의 구주, 곧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줄 아담 안에서 죽은 것과 상관없는 한 생명이 아담 안에서 죽은 남자에게서 생명의 씨를 받은 일이 절대로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탄생해야 하거든요.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존재는 구주로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탄생할 구주의 사람 계통에 대하여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 계통이 아닌데서 온 사람은 도덕 선생과 모범은 될는지 몰라도 결코 생명의 구주는 아닙니다.

5.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누구나 구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지요?

답: 당연하지요. 아브라함만 구주의 계통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 이렇게 그 이어지는 계통을 오해할 수 없도록 예언했습니다.

6.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은 자기가 구주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답: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녀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지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해야 하겠지만,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풀어가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첩을 통하여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을 실현할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17:20,21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했는데, 그에게서 여섯 아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모두 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독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계통이 될 사람은 오직 이삭뿐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히11:17에는 독생자라고 하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한 것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독생자라는 단어 “모노게네스”는 외아들이라는 뜻보다는 유일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아들들이 많아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은 그 아들 밖에 없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어도 이삭이 유일자입니다. 그 후에 여섯 아들이 더 태어났어도 구주가 올 계통으로는 이삭이 유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아니고 야곱이 구주가 오실 계통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고 구주가 오실 계통의 그릇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예정에 대하여서는 이미 공부했지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계통으로 구주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열 두 명입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까? 유다라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이런 계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구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그는 인생의 모범이나 사표는 되겠지만 구주는 아닙니다.

7. 그런 세밀한 사실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답: 당연하지요. 얼마나 중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결코 누구라도 속을 수 없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놓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역사가 흘러오면서 소위 교회 안에 혼란이 있고, 유대 나라에도 혼란이 있었지요. 성경의 예언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재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성경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올바르게 구주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지요. 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네요. 구약성경에도 있지만 그것을 종합하여 기록한 신약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군요. 로마서 9장에 잘 기록했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까?

[롬9:8~13]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의 계통이라고 잘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오신다는 것은 창49장에 12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에서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49:10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는 구주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7:14에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라고 확인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유다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삼하 7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사9:6,7]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라고 했지요. 평강의 왕이나 실로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유다는 말하지 않고 구주가 어떤 계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 언약으로서 첫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과 마지막 언약의 사람 다윗의 이름만 말했네요.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주가 오실 사람 계통을 밝혔습니다. 성경을 빈 마음으로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셔서 아무도 속지 않도록 하셨지요.

8.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꼭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계통을 말하면서 남자들 이름만 예언에 등장합니까? 쉽게 납득이 될 것 같지 않네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말할 때에 언제나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를 하지 여자의 후손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목사님이나 열심히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 정말 그렇군요. 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성경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언적 표상으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참 교회를 통하여 구주가 오신다고만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의 전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주가 오신다고 말하고 구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국가를 튼튼히 세운 영명한 왕 다윗의 계통으로 온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지요. 더구나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배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사실을 명백히 기록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실제적 상태를 기록한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남자인 아담의 씨로 오지 않고 남자와 상관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씨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원죄 문제와 얽혀서 반드시 바르게 깨달아야 구원의 진상을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했는가 하면 예언적 계통을 밝히는 것인데 그렇게 밝혀야 이미 말한 대로 구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속을 필요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혼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정혼했다는 것이 바로 남자들의 이름으로 계통을 밝힌 것과 관련된 사실을 나타내지요.

9. 정혼한 것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답: 아마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약혼 단계이고 다음은 정혼 단계이고 마지막이 동거하는 결혼 단계라고 합니다. 약혼 단계에서는 양측이 파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정혼 단계에 이르면 법적 제재를 받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혼이 허락되지 않으면 파혼 할 수 없는 법적 보호 기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법적 상태에 있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당시로서는 돌로 쳐죽이는 형벌이 가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조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그래야 탄생하는 아기가 다윗 집안의 호적에 등재되지요. 법적으로 완벽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예언도 성취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도 성취되게 한 것이지요. 구주는 이렇게 완벽하게 예언된 그 길을 좇아 세상에 오시고 이루실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청자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구주가 오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언된 대로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바른 생활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